

## 《朴通事新註新譯(五)》\*

李陸禾\*\*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에서 <朴通事新註新譯(四)><sup>1)</sup>의 후속 작업으로, 제34단락부터 제40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신기로 한다. 본 논문의 研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 引用한 文獻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 本文

#### 第34話 家裏取氈衫

你怎麼纔來? 早起<sup>2)</sup>家裏有客人來, 打發<sup>3)</sup>他去纔來。咱官人<sup>4)</sup>在那裏? 官人在文淵閣<sup>5)</sup>, 官裏<sup>6)</sup>前面看<sup>7)</sup>書畫裏<sup>8)</sup>。一會兒喫罷湯時<sup>9)</sup>, 便上馬<sup>10)</sup>。上馬往那裏去?

\* 이 연구는 201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1) 中國學論叢 第32輯(2011年), 第33輯(2011年), 第34輯(2012年), 第36輯(2012年).

2) 早起: 早晨. 元刻《魔合羅》一白:「早起天晴, 如今陟恁的好雨!」(劉堅 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408.)

3) 打發: 發付, 應付. 《平山冷燕》第十六回:「侍妾之才, 料也有限, 只消一首詩, 打發他去, 便可與小姐相見。」(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350.)

4) 官人: 奴僕對男主人的尊稱. 《水滸全傳》第七回:「只見女使錦兒慌慌急急, 紅了臉, 在牆缺邊叫道:『官人, 休要坐地, 娘子在廟中和人合口。』」(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681.)

今日上墳<sup>11)</sup>去。上了墳回來怎的<sup>12)</sup>? 今日到黃村宿, 明日就<sup>13)</sup>那裏上了墳, 喫筵席<sup>14)</sup>, 儘<sup>15)</sup>晚入城來。各衙門官人們今日都請下了。八舍<sup>16)</sup>你却<sup>17)</sup>那裏去? 我家裏取氈衫<sup>18)</sup>和油帽兒。我不理會得<sup>19)</sup>, 不會<sup>20)</sup>將的來, 你將兩個油紙帽兒來, 借與我一個。我只有一个油絹帽兒裏。孟舍有兩個油紙帽兒, 你問<sup>21)</sup>他借時便饋你。那厮那裏<sup>22)</sup>肯饋, 不通人情不得仁義的小厮。怎麼不與你? 又不喫了他的。你自

- 5) 文淵閣：明代宮內貯藏典籍及皇帝講讀之所。明太祖始建於南京奉天門東。成祖遷都北京，又於宮內東廡南建文淵閣。後置文淵閣大學士。《明史·藝文志一》：「永樂四年，帝御便殿閱書史，問文淵閣藏書。」【夾註】一名玉堂，有大學士正五品官。
- 6) 官裏：猶官家。指皇帝。宋·周密《武林舊事·乾淳奉親》：「是日官裏大醉，申後，宣遣遙子入便門，升輦還內。」又，元·王伯成《貶夜郎》第一摺：「官裏御手親調醒酒湯。」
- 7) 看：此作“接待”。蔣禮鴻《敦煌變文字義通釋》：「《太平廣記》卷十八引《續玄怪錄》：“阿春因教鳳花臺鳥：‘何不看客？三十郎子以黃郎不在，不敢接待對郎君。’”“看”就是“接待”。“看”、“看待”又作“照顧解。」（上海古籍出版社，1981年，頁200。）
- 8) 裏：猶助詞“呢”。明·缺名《閻銅台》第二折：「（宋江云）學究，一路上辛苦也。（正末云）為朋友有甚麼辛苦來。」（許少峯 編，同前揭書，頁1091。）
- 9) 湯時：應是“堂食”之誤寫。顧學頡、王學奇，《元曲釋詞》卷三：「唐代，宰相辦公處叫政事堂，宰相的公膳，稱為堂食，或堂飧、堂饌。後來對一般官員的宴會，也稱堂食。」（中國社會科學出版社，頁1988。）公家所供的膳食。關漢卿《單刀會》第二折：「大夫也，我可也無福吃你那堂食玉酒，我則待溪山學許由。」（許少峯 編，同上揭書，頁1807。）
- 10) 上馬：起程，出發。
- 11) 上墳：“掃墓”之俗稱。
- 12) 怎的：幹麼，為甚麼。明·高則誠《琵琶記》第二二出：「你新弦既撇不下，還思量那舊弦怎的？」（許少峯 編，同上揭書，頁2330。）
- 13) 就：介詞“在”。關漢卿《望江亭》三 正旦白：「自從俺父親就那客店上生扭俺夫妻兩箇，我不曾有片時忘的下俺那染病的男兒。」（藍立萸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137。）
- 14) 筵席：酒席。
- 15) 儘：表示以某個範圍為限，不得超過。《黃綉球》第二四回：「那個摺子一定要偷出來，騙出來，儘今天送到。」
- 16) 八舍：【夾註】《音義》云：行次第八之人。
- 17) 却：又。關漢卿《調風月》—【尾】：「忽地却掀帘，兜地回頭問，不由我心兒裏便親。」（藍立萸 編著，同上揭書，頁224。）
- 18) 氈衫：氈氈制的衣衫。《三國演義》第一一七回：「副將有氈衫者裹身滾下，無氈衫者各用繩索東腰，攀木挂樹，魚貫而進。」
- 19) 理會得：領悟，理解。同“理會”。元·缺名《勸金環》楔子：「兄弟也，我則理會得壯志男兒當自強，省可裏將他廝料量。」
- 20) 不會：未曾。與現代漢語“沒有”同。
- 21) 問：此作介詞向。《元典章·刑部三》：「因弟李辛六問夢龍取索舊欠二兩，無錢歸還，將夢龍毀罵。」（劉堅 江藍生 主編，同上揭書，頁335。）
- 22) 那裏：即“哪裏”。用於反問句，表示否定。《孽海花》第十七回：「雯青正應酬得汗流浹背，哪裏有工夫留心彩雲的事情。」

儘<sup>23)</sup>一儘。咱們的馬怎的<sup>24)</sup>喂? 官人的伴當<sup>25)</sup>處<sup>26)</sup>, 散饋喂馬的草料<sup>27)</sup>錢。那般時<sup>28)</sup>省氣力。

【번역】

甲某: 자네는 어찌 이제야 오는가?

八畝: 아침에 집으로 손님이 오셔서, 응대하고 보내느라 이제야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는 어디에 계신가요?

甲某: 자네 주인께서는 문연각(文淵閣)에서, 임금님전에서 書畫 시중을 들고 계신다네. 잠시 후에 관원들과 당식(堂食)<sup>29)</sup>을 드시고 나면, 곧 출발을 할 것이네.<sup>30)</sup>

23) 儘: 猶詢問, 征求。清·李漁《蜃中樓·姻阻》:「三弟, 你也忒猛浪了些, 是不是? 也該儘我一聲, 怎麼輕易就許?」(《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24) 怎的: 怎樣, 如何。

25) 伴當: 此作「隨從」、「僕從」。元·高文秀《黑旋風》第四折:「我使的伴當却那同知家裏取酒去, 這早晚怎生不見來?」(許少峯編, 同上揭書, 頁55。)  
【夾註】《音義》云: 軍職官跟隨儀從人謂之伴當, 三日一換。當, 去聲。

26) 處: 用於詞尾, 表示地點, 所在。《水滸全傳》三九回:「宋江聽罷, 搔頭不知痒處, 只叫得:『苦, 我今番必是死也。』」(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 1997年, 頁171。)

27) 草料: 喂牲畜的草飼料。

28) 時: 表示假定的語助詞。

29) 原文「湯時」를 「堂食」의 誤寫로 보았다. 「堂食」은 위의 주석 9)번에서처럼, 관청에서 관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말함인데, 이와 비슷한 경우로 뒤의 第86話에는 「這衙門更是好湯食(이 관아의 음식은 더욱 맛있다)」이라는 글귀를 볼 수가 있다. 中國 石家莊大學의 楊棟 教授도 《朴通事諺解》의 「湯食」을 「堂食」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湯食은 정부 기관의 官食이다. 元·薛昂夫의 散曲: 「도살하여 堂食으로 제공되다(湯食, 政府機關의 工作餐. 薛昂夫散曲: 「殺了供堂食」.」(楊棟, <元曲研究失落的兩部珍貴域外文獻 — 對<朴通事諺解>與<老乞大諺解>의 幾點認識>, 《山東科技大學學報》, 2000年, 第4期). 「堂食」에 대한 우리말 사전 등에서는 찾을 수 없으나, 《목은시교(牧隱詩藁)》에서 「堂食」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제25권) ... 곡성부원군 이하 제위가 각사(各司)의 장관(長官)들을 불러서 앞으로 다가오게 하여 그 뜻을 유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좌이관(左貳官)들과 함께 그 일을 의논하여 그 결과를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이에 당식(堂食)을 간략히 배풀었는데, 나는 의논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약간 취하여 돌아왔다.」, 「(제33권)화산군(花山君) 권공(權公), 전 밀직(密直) 이공(李公)과 함께 대내(大內)에 가서 문안을 올렸는데, 도당(都堂)에서 불러 공사(公事)를 의논하고는 당식(堂食)을 차려 주기에 술과 밥을 실컷 먹고 돌아왔다.」(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역)

30) 原文「官人在文淵閣, 官裏前面看書畫裏. 一會兒喫罷湯時, 便上馬。」一句에 대해서 「官人在文淵閣에 이서 황태 합희서 書畫를 보니 혼 디위 탕을 먹으면 上馬홀러라」라는 諺解를

八舍: 출발하면 어디로 행차를 하신다고 합니까?

某甲: 오늘은 성묘하러 가시네.

八舍: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某甲: 오늘은 黃村에서 주무시고, 내일은 거기에서 성묘를 하시고, 연회를 열고, 밤이 되기 전에 성안으로 들어오실 것이야. 각 관아의 관리들은 오늘 이미 모두 오시라고 청하셨네. 팔사(八舍)자네는 또 어디에 가는가?

八舍: 내 집에 담삼(氈衫)<sup>31</sup>과 油帽<sup>32</sup>를 가지러 갑니다.

某甲: 내 미처 생각지 못해서, 가져오질 못했는데, 자네가 油紙帽 두 개를 가져 와, 하나를 날 빌려주시게.

八舍: 저에게는 油絹帽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孟舍에게 油紙帽 두 개가 있으니, 그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입니다.

某甲: 그 자가 빌려주겠는가? 인정머리도 없고 仁義도 모르는 작자일세!

八舍: 어찌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가지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형님께서서 물어나 보시지요.

某甲: 우리들의 말은 어떻게 먹여야 하는가?

八舍: 어르신을 수행하는 시종 그들에게, 말먹이 값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王霞 崔宰榮은 「어르신께서 文淵閣에 계시는데, 황제 앞에서 書畫를 보신다네. 잠시 후 탕을 드시면 곧 말에 오르실 것일세.」(『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 08年)라고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풀이는 原文에서의 '看'字를 단순히 '보다'라고만 해석을 하였고, 原文의 '喫罷湯時' 또한 글자 그대로만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의 註(7)번과 9)번 그리고 29)번을 종합하고, 또한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 「御殿에서 皇帝의 御覽 보살펴드리고 나서, 동료들과 官衙에서 제공하는 음식(官食)을 먹다」로 해석해야 옳다고 보았다.

31) 原文의 '披氈과 氈衫'은 양털로 만든 지금의 담요 같은 것 또는 그러한 옷이나 이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原文의 '油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인지 알 수는 없다. 原文에는 '油帽'를 포함하여 '油紙帽'와 '油絹帽' 세 종류의 帽子 이름을 볼 수 있다. '油紙'는 '기름을 먹인 종이(一種用韌紙浸桐油制成的紙)이므로, '油紙帽'는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가리는 용도의 모자의 일종으로 보인다. '油帽'는 '油紙帽'와 '油絹帽'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보았다. 우리말의 '갈모'는 비올 때만 쓰는 우모(雨帽)이므로 '갈모'라고 번역하는 것도 적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이에 原文 그대로 번역을 하였다. 하인들이 먼 길을 떠나면서 햇볕이나 비와 바람을 가리기 위하여 우산처럼 펼쳐진 테두리에 살을 대고 종이나 천에 바른 뒤에 기름에 절여 차양부분을 넓게 만든 그러한 모자로 보인다.

하면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 第35話 做人情

你昨日張千戶<sup>33)</sup>的生日裏，何故不來？小人其實不會知道。那裏做生日來？八里庄<sup>34)</sup>梁家花園裏做來，我也那一日遞了手帕<sup>35)</sup>之後，吃幾盞酒，過<sup>36)</sup>兩道湯<sup>37)</sup>，便上馬出來了。咳，我真個不會知道來。我也明日到羊市裏，五錢銀子買一個羊腔子<sup>38)</sup>，做人情<sup>39)</sup>去饋他補生日。有甚麼遲處<sup>40)</sup>？常言<sup>41)</sup>道：“有心拜節<sup>42)</sup>，寒食<sup>43)</sup>不遲。”

- 
- 33) 千戶：官名，金朝始置，為世襲軍職。初專授予漢人降臣，后也用以稱女真軍事組織猛安。蒙古成吉思汗建國後封功臣，也用此名，又稱千夫長，共九十五人。元朝於各路設千戶所，置千戶為長官，隸屬於萬戶，下領百戶。以統兵數量分為上、中、下三等。七百人以上為上千戶所，五百人以上為中千戶所，三百人以上為下千戶所。明朝沿置為千戶所長官，正五品。【夾註】軍士五千六百名為一衛，二千二百名為一千所，一百一十名為一百戶所，每百戶內設撥旗二名，小旗二名。
- 34) 八里庄：【夾註】地名。凡鄉井之制，在內曰街、坊、關、廂，在外曰店、鎮、鄉、庄、畹、保、屯、務、寨、峪、灣、窩，蓋因俗呼得名，皆指人所聚居之處也。
- 35) 手帕：禮物的代稱。元·喬吉《兩世因緣》第一折：「解元，我待與王媽媽遞手帕去來，只怕來的遲，教你盼望，着娘替我去了。」【夾註】即手巾也。
- 36) 過：幫助咽下；和着吃。如：過過(過口，改口味)，過口(吃食物下酒)，過酒(下酒；送酒)
- 37) 湯：湯菜。
- 38) 羊腔子：羊腔子是把羊去掉頭、四肢和內臟後，加入特制的香料進行炖煮，故得名“羊腔子”。【夾註】《韻會》云：骨體曰腔。《音義》云：羊無首之名，羊有首，則人厭看。今按：漢俗屠羊出賣者，皆去其首。
- 39) 做人情：送禮物。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京本通俗小說·西山一窟鬼》：“一個人道：‘打春醜醜！你這厮許了我人情又不還，我怎的不打你？’這說明在唐宋已有送人情的風尚。清·翟灝《通俗編》亦云：‘以禮物相遺曰送人情，唐、宋、元人皆言之也。’現在仍有此說法，如遇親友婚喪時，贈送禮物，叫做‘隨人情’或‘送人情’。」(語文出版社，2002年，頁912。)
- 40) 處：此作語氣詞，相當於“啊”，“呢”。關漢卿《拜月亭》二【鬪蝦蟆】白：「父親不知，本人於您孩兒有恩處。」(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頁189。)
- 41) 常言：民間流傳的口頭語，如諺語 格言等。
- 42) 拜節：節日裏向尊長或親友祝賀。亦特指拜年。宋·吳自牧《夢梁錄·正月》：「正月朔日謂之元旦…士夫皆交相賀，細民男女亦皆鮮衣往來拜節。」【夾註】《歲時樂事記》云：元旦，士庶自早互相慶賀，車馬交馳，衣服華煥，雜還街市，三四日而乃止。
- 43) 寒食：【夾註】《荊楚記》云：去冬節一百五日，有疾風甚雨，謂之寒食，又謂之百五節。秦人呼為熟食日，言其不動烟火，預辦熟食過節也。(後略)

## 【번역】

甲某: 자네는 어제 張千戶의 생일인데, 어찌 오질 않았는가?

乙某: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어디서 생일상을 차렸습니까?

甲某: 八里庄에 있는 梁씨네 화원(花園)에서 했는데, 난 그날 선물<sup>44</sup>을 건네 주고, 술 몇 잔과 두어 가지의 음식을 먹고는, 그 자리를 일어났네.

乙某: 아이고! 전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羊市<sup>45</sup>에 나가, 은자(銀子) 다섯 전(錢)어치 양고기(羊腔子)를 사가지고, 늦은 생일선물을 해야겠습니다.

甲某: 늦기야 하였겠는가? “세배할 마음만 있다면, 한식(寒食)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네!

## 第36話 西湖

揮使<sup>46</sup>, 你會到西湖<sup>47</sup>景來麼<sup>48</sup>? 我不會<sup>49</sup>到來, 你說與我那裏的景致麼<sup>50</sup>。

44) 原文의 ‘手帕’에 대해서 ‘夾註’에서는 ‘手巾’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 王霞·崔宰榮 <朴通事 諺解譯註(5)>에서도 諺解와 夾註를 그대로 인용하여 「나도 그날 수건을 건네주고」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註 35)번에서 볼 수 있듯이, ‘手帕’는 ‘禮物’ 등을 이르는當時의 用語인 것이다.

45) 原文의 ‘羊市’는 羊의 모든 것(양고기, 양고기 가공식품, 羊皮 등)을 거래하는 당시 北京(大都) 한 지역(시장)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도 北京의 地名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羊市大街這個名字消失已經40年了。它就是今天阜成門內大街西四到白塔寺十字路口之間的那一段路。… 先說西四羊市大街 … 羊市大街與對面的馬市大街(現西四東大街、東四猪市大街(現東四西大街)以及宣外驛馬市大街等, 都因過去進行牲畜交易而得名。然而世事滄桑, 以後只留下地名。」(摘自 百度網)

46) 揮使: 【夾註】『音義』云: 揮使, 指揮之美稱。今按: 指揮使, 官名。都督府都指揮使正二品, 各衛指揮使正三品。

47) 西湖: 無名氏 <頤和園: 一座在沼澤濕地上建立的皇家園林>: 「昆明湖, 現在是北京城西最大的一處湖泊, 歷史上曾稱: “瓮山泊”、“七里泺”、“大泊湖”、“西湖”等。… 早在金代, 皇室就在湖邊的瓮山(今萬壽山)建立了行宮。元代郭守敬爲漕運整合水源, 對西湖加以擴浚, 擴大了西湖的面積, 始稱瓮山泊。到至元二十八年(1291年), 郭守敬在開鑿通惠河時, 將瓮山泊作爲運河上游的調節水庫, 再次挖鑿擴建, 并通過玉河引玉泉、白浮堰引昌平白浮泉等入泊, 並於至元二十九年修築了十里長的西堤。… 明代湖中多植荷花, 周圍水田種植稻穀。湖光山色, 亭台樓閣, 因爲這一帶風景優美, 山水俱佳, 酷似江南風景。正德年間瓮山改名爲“金山”, 瓮山泊改爲“金海”,

說時濟<sup>51</sup>)甚麼事? 咱一個日頭隨喜<sup>52</sup>)去來<sup>53</sup>)。然雖<sup>54</sup>)那們時, 且<sup>55</sup>)說一說着。我說與你, 西湖<sup>56</sup>)是從玉泉<sup>57</sup>)裏流下來, 深淺長短不可量。湖心中, 有聖旨裏蓋來的兩座琉璃閣<sup>58</sup>), 遠望高接青霄, 近看時遠侵碧漢<sup>59</sup>)。四面蓋<sup>60</sup>)的如鋪翠, 白日

并建有金山行宮, 供皇家享樂。」(摘自 百度網) 又, 「頤和園歷史要回到八百多年前金朝第一個皇帝“海陵王”完顏亮, 他把都城遷到燕京後, 在這兒設立“金山行宮”。金山就是現在的萬壽山。後來金章宗完顏璟又把玉泉山泉水引到金山底下, 并命名河為“金水河”, 湖為“金湖”。元朝時金山改名“瓮山”。… 1292年元代管水利的官員郭守政建議在這一帶開鑿河道, 疏浚瓮山諸泉。… 他把昌平一帶的泉水引到瓮山脚下, 擴大湖面, 并改名為“瓮山泊”, 即昆明湖。這個人工湖曾多次改名, 有時叫“西海”或“西湖”… 乾隆十五年(1750年)乾隆帝為了慶祝母親孝聖皇太后六十壽辰, 改“瓮山”為“萬壽山”, 并修建“大報恩延壽寺”, 又“疏導玉泉諸脈, 把山下湖泊改建為“巨浸”。從此, 湖名改為“昆明湖。”(摘自 百度網)

48) 來麼: 語氣助詞, 用於疑問。

49) 不曾: 未曾, 沒有。

50) 麼: 李嵩興 等著《元代漢語語法研究》: 「麼或作末。… “這漢大膽麼! 誰請你來? 自走出來了!”(氣英布, 一折【後庭花】白) … “麼”多少帶有一點商詢的意味, 如果在用“麼”的語段前面補上“你看”、“你說”之類的成分, 商詢的意味就更明顯。」

51) 濟甚麼事: 濟, 補益, 幫助。濟甚麼事, 即有什麼幫助或益處。比喻不能解決問題。

52) 隨喜: 佛教語。謂歡喜之意, 隨瞻拜佛像而生。因用以稱游謁寺院。元·王實甫《西廂記》第一本第一折: 「隨喜了上方佛殿, 早來到下方僧院。」《醒世恒言·張淑兒巧智脫楊生》: 「見寺宇整齊, 進來隨喜。」顧學頌校注: 「本是佛教徒瞻拜佛像, 隨像發生歡喜心的意思; 一般當做參觀佛寺解釋。」

53) 去來: 就是“去”。“來”, 語助詞。用在句中或口末, 表示祈使語氣。

54) 然雖: 即雖然。《張協狀元》卷十二: 「老漢然雖是個村陀落里人, 稍通得些個人事。」亦作“然是”。《水滸傳》五十八回: 「若得吾師去請他來最好, 然是如此, 不可獨自去, 可煩武松兄弟相伴走一遭。」(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頁898。)

55) 且: 先。《水滸全傳》第二三回: 「(武松)叫道: ‘主人家, 你且來看我銀子, 還你酒肉錢勾麼?’ 酒家看了道: ‘有餘, 還有些貼錢與你。’(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361。)

56) 西湖: 【夾註】在玉泉山下, 泉水瀦而為湖, 流入宮中西苑為太液池, 出都城為玉河, 東南流注于大通河, 環湖十餘里, 荷蒲菱芡與夫沙禽水鳥出沒隱映於天光雲影中, 實佳境地。

57) 玉泉: 無名氏《頤和園: 一座在沼澤濕地上建立的皇家園林》: 「南北走向的玉泉山位於海澱濕地西部, 長約1300米, 寬450米, 海拔高度100米。它的東坡和南坡上曾經分布着十四眼日夜涌出的清泉。最盛時期, 每晝夜的出水量超過10萬立方米。玉泉山曾經是高梁河乃至北京城最重要的水源地。【夾註】在宛平縣西北三十里, 玉泉山下。… 一在山之根, 有泉湧出, 洞門刻玉泉”二字, 有觀音閣。…(省略)。

58) 琉璃閣: 西湖北岸上的大寺叫做大承天護聖寺, 建成於元文宗至順三年(1332年), 由於它位於西湖之畔, 民間便稱之為西湖寺, 這個名稱後來亦見之於官方文獻。大承天護聖寺有“二閣在水中坵, 東曰圓通, 有觀音大士像; 西曰壽仁, 上所御也”。這二閣就是《朴通事》中所說湖心中的兩座琉璃閣, 富麗堂皇, 為西湖增添了景色。元順帝至正年間, “承天護聖寺火, 有旨更作, (李稷)乃上言: ‘水旱頻仍, 公私俱乏, 不宜妄舉大役。議遂寢。’顯然, 這次火災使護聖寺遭到了嚴重的破壞。明代, 承天護聖寺改稱功德寺, 有關文獻中, 再沒有提到湖心雙閣。有的記載說: “功德寺舊名護聖, 前有古台三, 相傳元主游樂更衣處, 或曰: 此看花釣魚台也。”這三處古台無疑就是雙閣和雙閣中間石橋的遺蹟, 兩閣應毀於元末火災之中。《朴通事》中所描寫的, 是大承天

黑夜瑞雲生，果是奇哉！那殿一划<sup>61</sup>是纏<sup>62</sup>金龍木香停柱，泥椒<sup>63</sup>紅牆壁。蓋的都是龍鳳凹面花頭<sup>64</sup>筒瓦<sup>65</sup>和仰瓦<sup>66</sup>，兩角獸頭都是青琉璃。地基<sup>67</sup>地飾都是花斑石，瑪瑙幔<sup>68</sup>地。兩閣中間有三叉石橋，欄干都是白玉石。橋上丁字街<sup>69</sup>中間正面上，有官裏<sup>70</sup>坐的地<sup>71</sup>白玉石玲瓏<sup>72</sup>龍床，西壁<sup>73</sup>間有太子坐的地石床，東壁也有石床，前面放一個玉石玲瓏酒卓兒。北岸上有一座大寺，內外大小佛殿、影堂、串廊，兩壁鐘樓、金堂、禪堂<sup>74</sup>、齋堂、碑殿，諸般殿舍不索<sup>75</sup>說，筆舌難窮。

護聖寺落成後，火災發生前的西湖景致。（陳高華，〈從老乞大朴通事元與高麗的經濟文化交流〉，《歷史研究》，1995年）

59) 碧漢：碧天銀漢的合稱，即天空。【夾註】即天河也。河精上為天漢。『爾雅：“析木謂之津。”津在箕斗間，自坤抵艮為地紀，亦名“雲漢”，曰“天潢”，曰“銀河”，曰“銀漢”，曰“河漢”。

60) 蓋：《釋名·釋言語》：“蓋，加也，加物上也。”

61) 一划：此作一概，統統解。《醒世恒言》卷三十八：「怎麼那來路一划都是高山陡壁，全無路徑。」（陸澹安著，《小說詞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62) 纏：繞，圍繞。

63) 泥椒：泥，指牆壁的塗料。劉慶慶《世說新語·汰侈》：「石以椒為泥，王以赤石脂為泥壁。」椒，木名。即花椒。藝香科，落葉灌木或小喬木，具有香氣。其種子亦用以和泥塗壁。（《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64) 花頭：此作“花紋”。《官場現形記》第二九回：「到了南京之後，住了兩個月，寄過兩件織現成花頭的緞子送給小紅作衣服穿。」按，亦可作“花頭瓦”之省，“花頭瓦”亦可作“花邊瓦”。花邊瓦是布瓦瓦件之一，用於合瓦屋頂檐頭的第一塊底瓦及蓋瓦，因其大口邊緣向外翻起，并有花紋而得名花邊瓦。宋稱其為垂唇板瓦，又按其處在底瓦或蓋瓦的位置，稱為下花頭和上花頭瓦。

65) 筒瓦：筒瓦為半圓筒形的瓦。（摘自 百度）

66) 仰瓦：凹面向上的瓦。明 謝肇淛《五雜俎·天部二》：“月如仰瓦，不求自下；月如彎弓，少雨多風。”

67) 地基：猶地面，地皮。《紅樓夢》第五九回：「自從分了地基之後，各房裏每日皆有分例。」

68) 幔：蒙蓋。《西遊記》第六回：「列公將天羅地網不要慢了頂上。」（張永言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86年）

69) 丁字街：即“丁字路”。“丁字”，如“丁”的三角形態。《三國演義》第五回：“三匹馬丁字兒廝殺，戰到三十合，戰不倒呂布。”《女仙外史》第九三回：“兩員小將見他來得凶猛，雙舉兵器敵住，丁字般來來往往，盤旋大戰，約已五十餘合。”

70) 官裏：猶官家，宋元口語中對皇帝的稱呼。

71) 坐的地：即“坐着的”。的，用在“坐、臥、立”等動詞後面，表示動作狀態的持續，略同“着(zhe)”。也寫作“地”。隋本《博望燒山》—【醉中天】：「我請你個玄德公安然坐的。」坐的，即“坐地”。坐着，坐定。《古今小說》二卷：「那田氏還呆呆的坐地，問他時全然不省。」（許少峯主編，同上揭書，頁1553。）又“下”。《水滸傳》十九：「吳用就血泊裏拽過頭把交椅來，便納林冲坐地。」（高文達主編，《近代漢語詞典》，智識出版社，1992年，頁149。）

72) 玲瓏：精巧細致。

73) 壁：邊，面。泛指某一方位。《董西廂》卷一：「向松亭那畔，花溪這壁，粉牆掩映，幾間寮舍。」《三國志平話》卷下：「軍過盡後，有人拆其橋，兩壁火起。」（龍濟庵編著，同上揭書，頁1010。）

74) 禪堂：猶禪房。“坐禪堂”的略稱，亦作“僧堂”，是眾僧坐禪用的堂室，佛徒打坐習靜之所。

擎天<sup>76</sup>)耐寒傲雪蒼松，也有帶霧披<sup>77</sup>)烟翠竹，諸雜名花奇樹不知其數。閣前水面上，自在快活的對對兒鴛鴦，湖心中浮上浮下的是雙雙兒鴨子，河邊兒窺魚的是無數目的水老鴉<sup>78</sup>)，撒網垂鉤的是大小漁艇，弄水穿波的是覓死<sup>79</sup>)的魚蝦<sup>80</sup>)，無邊無涯的是浮萍蒲棒，噴鼻眼花的是紅白荷花。官裏上龍缸<sup>81</sup>)，官人們也上幾只缸，做個筵席，動細樂<sup>82</sup>)大樂，沿河快活。到寺裏燒香隨喜之後，却<sup>83</sup>)到湖心橋上玉石龍床上，坐的歇一會兒，又上琉璃閣，遠望滿眼景致。真個是畫也畫不成，描也描不出。休夸<sup>84</sup>)天上瑤池<sup>85</sup>)，只此<sup>86</sup>)人間兜率<sup>87</sup>)。

## 【번역】

甲某: 휘사(揮使)께서는西湖에는 가보셨습니까?

- 75) 不索：不消，無須。元關漢卿《救風塵》一折：「這歪刺骨好歹嘴也，我已成了事，不索央你。」（許少峯 主編，同上揭書，頁90。）
- 76) 擎天：托住天。形容堅強高大有力量。
- 77) 披：此作“覆蓋”。
- 78) 水老鴉：鸕鶿，也叫水老鴉、魚鷹。
- 79) 覓死：應是“覓食”之誤寫。
- 80) 魚蝦：亦作“魚鰕”。魚和蝦。泛指魚類水產。
- 81) 《元史·郭守敬傳》記載：「別引北山白浮泉水，西折而南，經瓮山泊，自西水門入城，環匯於積水潭。」當時為增加通惠河水量，將西湖西北幾十里範圍之內的昌平西南山麓白浮等泉水引導入湖中，長堤必須系統修筑。元代游西湖，水路沿通惠河（長河）溯流而上可直達，《燕石集》記載元朝皇帝都有專門游西湖的“御舟”。明神宗（1588年）游西湖，陣容龐大，“經西湖，登龍舟，后妃嬪御皆從……是時餘鯨青雀，首尾相銜，即漢之昆明殆不過是。”（《長安客話》）陸路可沿長堤騎馬前行，元代詩文多有記載。如馬祖常《西山》詩有：「鳳城西去玉泉山，楊柳長堤馬上游」之句可證。元至順三年（1332）文宗“泛舟於西山高梁河，調衛士三百挽舟”。泛舟的目的地自然是西湖了。（蔡蕃，〈昆明湖的歷史演變及其環境效應〉，2010年，摘自“百度”）
- 82) 細樂：指管弦之樂。與鑼鼓等音響大的音樂相對而言。《紅樓夢》第九七回：「家裏細樂迎出去，十二對宮燈排着進來。」（摘自“百度”）
- 83) 却：又。又作“却又”。關漢卿《調風月》—【尾】：「忽地却掀簾，兜地回頭問，不由我心裏便親。」（藍立英 編著，同上揭書，頁224。）
- 84) 夸：通“誇”。
- 85) 瑤池：古代傳說中崑崙山上的池名，西王母所居。【夾註】『列仙傳』：崑崙閭苑，白玉樓十二，玄室九層，左瑤池，右翠水，環以弱水九重，非鸞車羽輪，不可到也。註：瑤池，王母所居。
- 86) 只此：就此處，這裏。《水滸全傳》四三回：「偶然殺了這窩猛虎，不須去縣裏請功，只此有些賞發便罷；若無，我也去了。」（許少峯 主編，同上揭書，頁1495。）
- 87) 兜率：【夾註】梵語兜率，此云妙足。又云知足，於五欲知止足，故『佛地論』云：名慧足。謂後身菩薩於中教化，多修慧足故。即欲界六天之一也。兜率天，人間四百世為一日。

揮使: 내 가보질 보했는데, 그대가 나에게 그곳의 경치에 대해서 말씀이나 해주시오.

某甲: 설명을 한다고 해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날을 잡아 절 구경을 가지지요?

揮使: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먼저 설명이나 해보시오.

某甲: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호(西湖)는 발원지인 옥천(玉泉)에서 흘러들어와 그 물의 깊이와 길이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호수 가운데에는 聖旨를 받들어 지은 두 채의 琉璃閣이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높은 푸른 하늘과 닿아 있는 듯하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먼 은하수에 닿아 있는 듯합니다.<sup>88)</sup> (琉璃閣)사방은 모두 비취로 장식하여 밤낮으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殿閣은 하나같이 黃龍이 휘감고 목향(木香)<sup>89)</sup>의 칠을 한 기둥<sup>90)</sup>에, 泥槷(니초)<sup>91)</sup>를 입힌 붉은색의 벽(壁)입니다. 지붕은 음각한 龍鳳 무늬의 막새<sup>92)</sup>와 둥근 암키와 그리고 수키와를 엮었고, 양쪽의 獸頭<sup>93)</sup>는 모두

88) 原文「近看時遠侵碧漢」에 대해서 諺解에서는 갖가이서 보면 멀리 碧漢을 侵하고」라고 풀이하고 있고, 王霞 崔宰榮은 「가까이서 보면 아스라이 은하수에 잠겨 있는 듯하다네.」(『朴通事諺解』 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 08年)라고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原文의 '侵'을 '侵入' 또는 '浸'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原文의 '侵'은 '臨近', '到' 또는 '接觸' 등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西廂記諸宮調》 卷一: “三身殿琉璃吻, 高接青虛; 舍利塔金相輪, 直侵碧漢。(三身殿 유리기와 처마는 하늘가 맞닿고; 사리탑 금색의 相輪은 은하수에 닿아있다),」이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接'과 '侵'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對句로서 '侵'은 '到'와 '接' 또는 '臨近'의 의미로 해석된다.

89) 原文의 '木香'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화과의 목향(Aucklandia lappa Decne.)의 뿌리를 말한다. ... 목향은 향기가 꿀과 같아서 밀향(蜜香)이라고도 한다. ... 오향(五香)이라고도 하였으며 그것을 태우면 온천지에 향이 퍼진다고 하였다.」

90) 原文「停柱」에 대한 用例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停」은 “相當, 勻稱, “竝立” 등의 의미로도 쓰이므로 「停柱」는 「우뚝 솟은 기둥」 또는 「곧게 벌은 기둥」 등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91) 原文의 「泥槷」은 앞의 註(63)번의 설명처럼, 담장을 바르는 塗料의 이름으로, 주재료가 「흙(泥)에 산초나무의 열매(가루)를 섞어 만든」것으로 보인다.

92) 原文의 「花頭」는 앞의 註(64)번에서의 설명처럼 본시 「무늬」의 의미를 가지지만, 前序의 문맥과 「龍鳳」을 우묵겨 면 듯게 한 막새와 수디새와 암디새라고 諺解하고 있음을 보고, 이에 「花頭瓦」의 줄임말로 보았다. 「花頭瓦」는 「무늬가 있는 기와」라는 의미이다. 「막새」에 대해서 우리말 사전에는 「재래식 골기와 지붕의 처마 끝을 꾸미는 수키와, 또는 그 수키와 끝에 달린 무늬가 새겨진 부분」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청유리(靑琉璃)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바닥의 화반석(花斑石)을 깔고 마노(瑪瑙)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두 殿閣 사이에는 세 갈래의 돌다리(石橋)가 놓여 있는데, 이 돌다리의 난간은 모두가 백옥석(白玉石)입니다. 돌다리 위 ‘丁’字 모양(模樣)의 세 갈래 길 가운데 정면에는, 임금께서 앉으시는 白玉石으로 정교하게 만든 용상(龍床)이 있고, 서쪽에는 태자(太子)가 앉으시는 석상(石床)이 있고, 동쪽에도 석상이 있는데,<sup>94)</sup> 그 앞쪽에는 玉石으로 만든 정교한 酒卓이 있습니다. 북쪽 언덕에는 큰 절이 있는데, 절 안팎에는 크고 작은 불전(佛殿)과 영당(影堂)<sup>95)</sup> 그리고 殿閣을 이어주는 장랑(長廊)<sup>96)</sup>, 또한 양쪽의 종각(鐘閣)과 금당(金堂)<sup>97)</sup>과 선당(禪堂)과 재당(齋堂)<sup>98)</sup> 그리고 비각(碑閣) 등의 많은 전각(殿閣)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글과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눈보라에 추위를 참아내면 하늘을 떠받치고 서있는 푸른 소나무가 있고, 또 연무(烟霧)를 머금은 푸르른 대나무(翠竹)하며, 여러 가지 유명한 꽃과 기이한 나무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殿閣 앞 물 위에, 자유롭게 노니는 것은 쌍쌍의 원앙이요, 호수 한 가운데서 자맥질에 열심인 쌍쌍의 오리, 물가 예서는 고기를 엿보는 수 많은 가마우지 하며, 그물을 펴고 낚시대 드리운 것은 크고 작은 고깃배

93) 原文의 “獸頭”는 지붕 위에 얹어 놓는 수형물(獸形物)을 말함이다.  
 94) 原文 “西壁間有太子坐的地石床, 東壁也有石床”一句에 대해서 《박문사 원나라 대도를 거닐다》에서는 「서쪽 벽 행랑칸(西壁廂)에는 타자가 앉는 석상(石上)이 있고, 동쪽 벽에도 석상이 있지」(박문사, 2011년, 320쪽)라는 번역을 볼 수 있다. 原文의 ‘西壁’와 ‘東壁’는 위의 註 73)번에서처럼 ‘壁’은 ‘邊’, ‘面’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方位詞이다. 즉 ‘西壁’은 ‘西邊(서쪽)’이고, ‘東壁’는 ‘東邊(동쪽)’을 말함이다.  
 95) 原文의 ‘影堂(영당)’은 한 종파의 조사(祖師)나 한 절의 창시자, 또는 덕이 높은 승려의 화상(畫像)을 모신 집을 말한다.  
 96) 原文의 ‘串廊’에 대한 辭書의 用例를 찾지 못했다. 다만 중국인터넷 「百度」에서 ‘traboules’를 ‘串廊’으로 번역하여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트라블르(traboules)’는 ‘한 구획의 집들 사이로 난 길’이라는 의미로 프랑스 리옹(Lyon)에서 전통 주점인 부송(bouchon)과 함께 트라블르(traboules)라는 좁은 길이 유명하다. 이에 ‘串廊’을 殿閣과 殿閣을 연결해주는 ‘長廊(一般爲有頂的通道, 尤指通到分隔間或房間的通道)’이라고 번역을 하였다.  
 97) 原文의 ‘金堂(금당)’은 절의 본당이나, 본존상을 모신 법당을 말함이다.  
 98) 禪寺의 食堂.

들이고, 물결을 가르며 노니는 것은 먹을거리를 찾는 물고기요,<sup>99)</sup>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은 부평초와 부들<sup>100)</sup>이고, 향기가 코를 찌르고 눈을 현란하게 현혹시키는 것은 붉고 하얀 연꽃입니다. 임금께서 배(龍船)에 오르시면, 신하들도 몇 척의 배에 올라, 잔치를 벌여, 갖가지 풍악<sup>101)</sup>을 올리며, 물길을 따라 즐긴다고 합니다. (나는)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여기저기 구경을 한 후에는, 또 호수 한가운데 다리에 있는 玉石의 龍床으로 가서, 잠시 앉았다가, 그리고 또 琉璃閣에 올라, 멀리 視野에 가득한 경치를 감상합니다. 정말로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고, 말로 묘사를 하려하여도 묘사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瑤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인간세상의 도솔천(兜率天)입니다.

99) 原文“覓死”에 대해서 소리가 비슷한 ‘覓食’의 誤寫로 보았다. 아무리 문학적 요소가 없는 會話敎習書일지라도 湖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대목에서 ‘죽음을 찾는 물고기들’이라고 묘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覓食’의 誤寫로 보고 ‘먹을거리를 찾아 노니는 물고기들’이라고 번역하였다. 王霞 崔宰榮은 「물결을 가르며 노니는 것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물고기와 새우요」(『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第23輯, 08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박통사 원나라 대도를 거닐다》에서는 「물을 희롱하며 물결을 헤치고 다는 것은 죽을 곳을 찾는 물고기들이지」(박문사, 2011년, 322쪽)라는 글을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弄水穿波호는 거슨 이 覓死호는 魚蝦오」라고 한 諺解를 가감 없이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0) 原文의 “蒲棒”은 ‘부들, 향포(香蒲)’로서, 부들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101) 原文“細樂”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1)왕조 때, 軍中에서 장구·북·피리·저·해금 등 몇 가지의 국악기로 편성되었던 소규모의 군악. (2)비교적 음량이 적고 실내에 알맞은 악기로만 편성한 작은 규모의 국악 합주, 또는 그러한 편성」(《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89년)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또 “大樂”에 대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신라 진흥왕 이후에 궁중에서 쓰던 음악」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옛날 궁중에서 연주하던 음악을 일반적으로 ‘雅樂’이라고 말할 쓰고 있다. 다음 글을 보면 ‘大樂’과 ‘雅樂’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中國에서는 宋代 이후부터 ‘大樂(太樂)’을 ‘雅樂’이라고 하였으며, 宋代的 民間에서는 궁중의 教坊에서 연주하던 雅樂을 大樂이라고 하였다(大樂: 古代指典雅莊重的音樂. 用於帝王祭祀、朝賀、燕享等典禮. … 唐·皮日休《憂賦》: “大樂既沒, 淫聲是起.” (1) 遼代的大樂, 即得自後晉的唐代張文收《宴樂》四部. (2) 宋代以大樂稱雅樂. (3) 宋代民間稱宮廷中教坊所奏雅樂爲大樂. (4) 太樂的異體寫法.)(摘自 “百度”)

第37話 對換

咱們結相識<sup>102)</sup>，知心腹<sup>103)</sup>多年了。好哥哥<sup>104)</sup>弟兄<sup>105)</sup>們裏頭，一遍也不會說知心腹的話，咱<sup>106)</sup>有一件東西，對換<sup>107)</sup>如何？咱<sup>108)</sup>對換甚麼東西？我的串香褐<sup>109)</sup>通袖<sup>110)</sup>膝襪<sup>111)</sup>五彩綉帖裏<sup>112)</sup>，你的大紅<sup>113)</sup>織金胸背帖裏對換着。我的

- 102) 相識：朋友，知交。明·缺名《補白免記》第十四出：「醉舞酣歌日，醞陶飲宴時，相識滿天下，知心能有幾。」
- 103) 心腹：心裏話，心事。《古今小說》第一卷：「(陳大朗)便把椅子撥近了婆子身邊，向他訴出了心腹，如此如此。」(許少峯 編，同上揭書，頁361。)
- 104) 哥哥：凡年齡相近男子的互相尊稱以及對同父母、同宗族或親戚中的兄長，皆相習以“哥哥呼之”。
- 105) 弟兄：此作“同輩男性之間的稱呼”。
- 106) 咱：“我”的自稱詞。多用於男子。關漢卿《謝天香》楔子：「謝他新聘任這官員，常好是與民方便，咱又得個一夜并頭蓮。」(許少峯 主編，同上揭書，頁1436。)
- 107) 對換：互相交換，對調。
- 108) 咱：我們。“我”的自稱詞。多用於男子。元·缺名《衣襖車》一折：「咱兩個才相見，心意投，英雄只說英雄手。」(許少峯 主編，同上揭書，頁1436。)
- 109) 串香褐：【夾註】合和諸香以爲佩者也。凡稱染色之少文彩者曰褐。串香褐、麝香褐、鷹背褐、茶褐，卽黃黑雜色也；玉褐、艾褐、水褐、銀褐，卽白黑雜色也；藕褐，卽紫黑雜色也。深淺異色，各取其像。
- 110) 通袖：長袖。《金瓶梅詞話》第四十回：「到次日，西文慶衙門中回來，開了箱櫃，打開出南邊織造的夾板羅殺尺頭來。使小廝叫將趙裁來，每人做件粧花通袖袍兒，一套遍地錦衣服，一套粧花衣服。」
- 111) 膝襪：蟒服、飛魚服、鬪牛服，這三種服裝的紋飾，都與皇帝所穿的龍袞服相似，本不在品官服制度之內，而是明朝內使監宦官、宰輔輔蒙恩特賞的賜服。獲得這類賜服被認爲是極大的榮寵。《明史·輿服志》：「宦官在帝左右，必蟒服…綉蟒於左右，繫以鸞帶。…次則飛魚…。又有膝襪者，膝襪，亦如曳撒，上有蟒首，當膝處橫織細雲蟒，蓋南郊及山陵扈從便於乘馬也。…至於曳撒是一種袍裙式服裝，於前胸後背飾蟒紋外，另在袍裙當膝處飾橫條式雲蟒紋裝飾，稱爲爲膝襪。」(摘自，百度)
- 112) 帖裏：【漢字】貼裏、帖裏、貼禮、天翼、天益。【漢字中古音】Thep Lio【朝鮮諺文】찰리(貼裏、帖裏)、천익(天益、天翼)。貼裏，又名帖裏，屬於漢服系統，類似深衣，卽上衣下裳，是明朝出現的一種腋下繫帶的袍，通常穿在圓領、褶護之下。取音(諧音)天益或者天翼。也作爲軍服。也是李氏朝鮮的軍服。《明宮史》曰：“貼裏，其制如外廷之披褶。”參考順褶，如貼裏之制，向褶之上不穿細紋，俗爲馬牙褶，卽外廷之〔衮〕褶也。”可見貼裏褶子并無特別，只是，幾褶上還有細小褶子。爲了方便活動，貼裏的褶子通常是1:1到1:2之間。… 在李氏朝鮮，青貼裏(青天翼)是低級軍官的軍服，紅貼裏是高級軍官的軍服。(摘自 百度)【夾註】元時好着此衣，前後具胸背，又連肩而通袖之脊，至袖口爲紋，當膝周圍亦爲紋如欄干，然織成段匹爲衣者有之，或皮或帛，用綵線周遭回曲爲緣，如花樣，刺爲草樹、禽獸、山川、宮殿之紋於其內，備極奇巧，皆用團領着之，其直甚高。達達之俗，今亦猶然。
- 113) 大紅：中國傳統色彩名稱，卽正紅色，三原色中的紅，傳統的中國紅，又稱絳色。《紅樓夢》第三五回：「鶯兒道：汗巾子是什麼顏色？寶玉道：大紅的。」

帖裏怎麼趕上你的綉帖裏? 打甚麼緊<sup>114</sup>)那<sup>115</sup>)! 咱男兒漢做弟兄, 那裏<sup>116</sup>)計較<sup>117</sup>)? 咱從今已後, 爭<sup>118</sup>)甚麼? 一母所生親弟兄, 有苦時同受, 有樂時同樂, 爲之妙<sup>119</sup>)也。

## 【번역】

甲某: 우리가 서로 벗으로서 사귀고, 서로의 속사정을 안지도 여러 해입니다. 우리 친한 벗들 가운데, 한 번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질 못하였으니, 나에게 물건 하나가 있는데, 서로 맞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乙某: 우리 서로 어떤 물건을 맞바꾸지요?

甲某: 통소매에 스란(膝襪)<sup>120</sup>)을 장식한 五彩의 수(綉)놓은 내 관향갈색(串香褐)<sup>121</sup>)의 철릭<sup>122</sup>)과 仁兄의 진홍색 금직<sup>123</sup>)흉배(金織胸背) 철릭과 맞

114) 打甚麼緊: 有甚麼有緊, 沒甚麼大不了的。明·價仲明《金安壽》第一折:「你這凡世快樂, 打甚麼緊, 在我跟前賣弄。」(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361.)

115) 那: 此作語助詞, 表疑問。金·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一:「百媚鶯鶯正驚訝, 道:「這妮子荒忙則甚那? 管是媽媽便來吵!」。」

116) 那裏: 與現代漢語「哪裏」同。有「怎麼」, 「如何」之意, 但比之「怎麼」語氣却強。元·石德玉《秋胡戲妻》第二折:「多謝親家, 我那裏吃得這酒!」

117) 計較: 此作「較量; 爭論」。宋·俞文豹《吹劍四錄》:「著心計較般般錯, 退步思量事事寬。」

118) 爭: 競爭, 爭奪, 互不相讓。吵鬧。

119) 妙: 好, 美哉。

120) 原文의 「膝襪」에 대해서 사전에는 「치맛단에 금박을 박아 선을 두른 것. 옛날 궁중이나 반가(班家)의 부녀자들의 예장용 치마에 장식했던 것으로, 폭은 약 20cm이며, 용·봉따위의 무늬를 놓는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형태와 모양에 따라 「스란치마」, 「대란치마」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마 조선조에 이르러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석 111) 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明代에 이르러 朝廷의 宦官들과 일부의 계층에서는 「蟒服(곤룡포)」을 입었는데, 「膝襪」이라함은 「蟒服」의 무릎 부분에 빙 둘러 雲蟒의 수를 넣어 단을 댄 형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121) 原文의 「串香褐」은 「褐色계통의 색상이라고 추측될 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元末明初의 사랍인 陶宗儀가 지은 《南村輟耕錄》(卷十一)에 갈색계통의 다양한 색조의 이름(磚褐, 荊褐, 艾褐, 鷹背褐, 銀褐, 珠子褐, 藕絲褐, 露褐, 茶褐, 麝香褐, 檀褐, 山谷褐, 枯竹褐, 湖水褐, 葱白褐, 棠梨褐, 秋茶褐, 鼠白褐, 丁香褐)을 나열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의服飾에 갈색계통의 색조가 많이 쓰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나열된 갈색의 명칭 가운데 「은갈색(銀褐)」, 「다갈색(茶褐)」과 같은 명칭을 귀에 익지만, 「벽돌색(磚褐)」, 「쭈갈색(艾褐)」, 「연뿌리 갈색(藕絲褐)」, 「푸른 빛을 띤 갈색(湖水褐)」, 「하얀 파뿌리 갈색(葱白褐)」 등의 이름은 생소하기도 하고 다소 추상적이라는 생각이다.

122) 原文 「帖裏」에 대해 諺解에는 「털릭」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철릭」에 대한

바꿈시다.

乙某: 내 철릭이 어찌 仁兄의 수놓은 철릭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甲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요! 우리 사내들이 형제처럼 지내는데, 무슨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는 따지고 어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어미가 낳은 형제이니,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함께 괴로워하고, 즐거운 것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이지요!

### 第38話 賣織金胸背段子

那賣織金胸背段子<sup>124</sup>的, 將來我看. 這的是<sup>125</sup>眞陝西<sup>126</sup>地面<sup>127</sup>裏來的? 舍人敢<sup>128</sup>不識好貨物麼<sup>129</sup>? 道地<sup>130</sup>的好胸背. 你謾<sup>131</sup>不得我, 我又不是生達達<sup>132</sup>、回回<sup>133</sup>, 生達達、回回如今也都會<sup>134</sup>了, 你怎麼謾的我高麗人? 不

우리말 사전에는 「무관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 직령(直領)으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신기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앞의 주석 112)번에서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겹의(袂衣: 겹옷, 소매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추어 겹으로 만든 옷)가 朝鮮朝에 들어와 武官의 공복(公服)으로 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3) 비단 바탕에 金絲로 문양을 짜서 나타내는 織造의 한 가지.

124) 段子: 緞子. 《水滸傳》二回: 「史進并太公苦留不住, 只得安排一個宴席送行, 托出一盤兩個段子, 一百兩花銀謝師。」(吳士勛 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年, 頁262.)

125) 這的是: 這個是, 此便是. 明·丘浹 《舉鼎記》第八出: 「秦強勢大, 上邦之稱, 把衆諸侯藐視輕, 這的是天子無能。」(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2368.)

126) 陝西: 【夾註】古雍州地, 漢所都長安之地. 唐置京畿道, 宋置陝西路, 元置陝西中書省, 今置陝西布政司使.

127) 地面: 地方, 轄境. 又作「田地». 元·缺名 《鴛鴦被》四折: 「如今來到洛陽地面, 張千, 是甚麼人吵鬧, 與我拿將過來。」又, 《五代史·梁上》: 「有那同州是箇要害田地, 須索箇好伴當每去据守。」

128) 敢: 難道, 莫非. 元·關漢卿 《望江亭》第二折: 「敢問相公, 爲甚麼不回後堂中去, 敢是前妻寄書來那?」(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410.)

129) 麼: 疑問詞. 或作「莫」, 「沒」. 《黃鶴樓》三【雙調新水令】白: 「我認的你, 有些面熟, 你敢是魚兒張麼?」(顧學墮 王學奇, 《元曲釋詞》卷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年, 頁474.)

130) 道地: 實在, 眞價實貨. 明·湯顯祖 《牡丹亭》第三四出: 「好鋪面, 這儒醫兩字, 杜老爺贈的. 好道地藥材. 這兩塊土中甚用?」(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410.)

131) 謾: 欺騙, 蒙蔽.

敢<sup>135</sup>)，舍人。怕<sup>136</sup>)你不信時，着<sup>137</sup>)別人看，便見真假。罷，罷，說賣的價錢。要七兩銀子，老實<sup>138</sup>)價錢六兩銀子。你來，你這暗花<sup>139</sup>)段子一打裏<sup>140</sup>)饋你十兩銀子，肯<sup>141</sup>)時要你的，不肯時罷，要甚麼多話。舍人甚麼銀子？有細絲官銀<sup>142</sup>)。罷，罷，將銀子來，濫賤的賣與你，你的手裏難尋錢<sup>143</sup>)。

## 【번역】

甲某：金織胸背 비단을 파는 비단장수! 구경을 좀하게 가져와 보시오. 이것이 틀림없는 진짜 섬서(陝西)지방에서 온 것이요?

商人：어르신께서는 좋은 물건을 보시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질이 좋은 胸背입니다.

甲某：날 속이지 못할 것이요! 난 물정을 모르는 몽골사람이나 아랍사람은 아

132) 達達：元明時漢人對蒙古人的稱號。元·湯顯之《酷寒亭》三折：「他道你是甚麼人？我道也不是回回人，也不是達達人，也不是漢兒人，我說與你聽者。」(許少峯 主編，同上揭書，頁208。)

133) 回回：舊統稱阿拉伯人。混稱波斯人。其人大都信奉回教，因稱。元·柯丹邱《荊釵記》第二二出：「我這兩隻眼，就是識寶的回回。我說道：王官人兩耳垂肩，定做朝官；鼻如截筒，一世不窮。」(許少峯 編，同上揭書，頁803。)

134) 會：領悟，明白。懂，通曉。元·鄧玉賓《叨叨令·道情》曲：「你省的也麼哥，你省的也麼哥，這一個長生道理何人會。」(許少峯 編，同上揭書，頁803。)

135) 不敢：謙詞。猶不敢當。清·孔尚任《桃花扇·听聲》：「這是弊友河南侯朝宗，當今名士，久慕清談，特來領教。(丑)不敢，不敢！請坐獻茶」

136) 怕：猶云倘若、如果、若其。《董西廂》卷二【正宮·尾】：「怎禁那和尚高聲罵：打脊賊徒每，怎敢反國家？怕更有當風的快出馬！」(顧學頌 王學奇，《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頁2。)

137) 着：叫；讓。關漢卿《金線池》三 正旦 白：「妹子也！爲我呵，着你置酒張筵也。」(藍立莫 編著，同上揭書，頁406。)

138) 老實：真實，實實在在。清·李漁《風箏誤》第十六出：「戚相公請老實些，上門的生意，不要錯過。」(許少峯 主編，同上揭書，頁1117。)

139) 暗花：隱而不顯的花紋。

140) 一打裏：一起，一塊，一併。同「一答里」，「一答兒」，「一搭里」。

141) 肯：猶答應，願意。明·湯顯祖《紫簫記》十一【天下樂】白：「蘇姑子作了好夢，有幾分肯，只是瞞過他些。」(王學奇 王靜竹 撰著，同上揭書，頁621。)

142) 細絲官銀：即紋銀。銀錠上有細紋道。是一種成色高的銀子。《古今小說》第四卷：「那尼姑貪財，見了這兩錠細絲白銀，眉花眼笑道：『大官人，你相與是誰？委我幹甚麼來？』」(許少峯 主編，同上揭書，頁1990。)

143) 尋錢：掙錢。尋，「掙，賺」。《儒林外史》二回：「李老爺這幾年在新任老爺手裏着實跑起來了，怕不一年要尋千把銀子。」(許少峯 編，同上揭書，頁2122。)

니요, 몽골이나 아랍사람들도 지금은 다 물정을 훤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 우리 고려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시오?

商人: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르신. 만일 믿질 못하시겠다면, 다른 사람에게 살 펴보라고 하시면, 금방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甲某: 관두시오! 팔 가격이나 말해보시오.

商人: 銀子 일곱 냥(兩)은 받아야 하는데, 정말 받아야할 가격은 銀子 여섯 냥(兩)입니다.

甲某: 이보시오, 이 열은 꽃무늬(暗花)의 비단을 함께 쳐서 銀子 열 냥(兩)을 줄 것이니, 원하면 가져갈 것이고, 싫으면 관두시오, 많은 말이 필요 없소.

商人: 은자(銀子)는 어떤 것입니까?

甲某: 무늬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세사관은(細絲官銀)이오.

商人: 그럼시다, 은자(銀子)나 주십시오, 싸게 파는 것입니다, 어르신 돈은 참으로 벌기가 어렵습니다.

### 第39話 高麗和尚開場說法

南城<sup>144)</sup>永寧寺裏聽說佛去來。一個見性得道的高麗和尚, 法名<sup>145)</sup>喚步虛<sup>146)</sup>, 到

144) 南城: 【夾註】大元以燕京爲大都, 俗呼南城。以開平爲上都, 俗呼北城。開平府在陰山之南。自燕京至上都, 地勢一步高一步, 四時多雨雪。

145) 法名: 出家入道時, 師所賜之名, 謂之法名。【夾註】削髮披緇故依佛法, 別立外號, 是謂法名。

146) 步虛: 清珙有弟子普愚太古, 高麗人。元至正七年(1347年)七月初, 普愚太古禪師離大都燕京(今北京)大觀寺, 至湖州霞霧山, 拜訪清珙。普愚太古求法15天後於八月初一離開, 帶走了“蒙授正印, 傳衣法信”的袈裟禪杖。普愚歸國後, 受到高麗王器重, 尊爲國師。… 此事在釋元旭所撰傳中有較詳細的記述(摘自百度)。【夾註】俗姓洪氏, 高麗洪州人, 法名普愚, 初名普虛, 號太古和尚, 有求法於天下之志。至正丙戌春, 入燕都, 聞南朝有臨濟正脉不斷, 可往印可。蓋指臨濟直下雪嵩嫡孫石屋和尚清珙也。遂往湖州霞霧山天湖庵謁和尚, 嗣法傳衣。還大都, 時適丁太子命辰十二月二十四日, 奉傳聖旨, 主持永寧禪寺, 開堂演法。戊子東還, 掛錫於三角山重興寺: 尋往龍門山, 結小庵, 額曰“小雪”。戊午冬, 示寂放舍利, 玄陵賜諡圓證國師, 對塔於重興寺之東, 以藏舍利。玄陵即恭愍王陵也。

江南地面<sup>147</sup>)石屋<sup>148</sup>)法名的和尚根底<sup>149</sup>)，作與頌<sup>150</sup>)字，迴光反照<sup>151</sup>)，大發明得悟。拜他爲師傅，得傳衣鉢。回來到這永寧寺裏，皇帝聖旨裏開場說法裏<sup>152</sup>)。說幾個日頭<sup>153</sup>)？說三日三宿，從今日起，後日罷散。諸國人民，一切善男善女，不知其數，發大慈心，都往那裏聽佛法去。這的真<sup>154</sup>)善智識<sup>155</sup>)那裏尋去，咱也隨喜去來。你且停一停，我到衙門押了公座<sup>156</sup>)便來。咱兩個將些布施和香去禮拜供養，做些因緣時<sup>157</sup>)好。說道：“人生七十古來稀”，不到三歲下世<sup>158</sup>)去的也有的是<sup>159</sup>)

147) 地面：地方，轄境。又作“田地”。《五代史·梁上》：「有那同州是箇要害田地，須索箇好伴當每去据守。」元·缺名《鶯鶯被》四折：「如今來到洛陽地面，張千，是甚麼人吵鬧，與我拿將過來。」(許少峯 主編，同上揭書，頁269。)

148) 石屋：清珙禪師(1272-1352)元代高僧，臨濟宗第十九世禪師。江蘇常熟人。俗姓溫，字石屋。生於南宋咸淳八年(1272年)，卒於元至正十二年(1352年)，年壽八十一(摘自百度)。【夾註】法名清珙，號石屋和尚，臨濟十八世之嫡孫也。普虛謁石屋，石屋見之云：“老僧今日既已放下三百斤擔子遞你擔了，且展脚睡矣。”乃微笑云：“佛法東矣。”遂以袈裟表信曰：“衣雖今日，法自靈山流傳至今，今附於汝，汝善護持，毋令斷絕。”《事文類聚》云：“釋氏五宗之教，傳至法眼，爲雪峰真覺禪師之道，至永明，其道傳於高麗國。”此即步虛之傳也。

149) 根底：亦作“跟底”。跟前，身邊。馬致遠《青衫淚》第三折：「相公呵，怕你要做好事，與奴盡依得。你則休漸漸來跟底。」(高文達 主編，同上揭書，頁241。)

150) 頌：亦作“偈頌”。偈，梵文Gāthā的音譯“伽陀”，也有譯“伽陀”、“伽他的”，簡稱“偈”，意爲“頌”、“風頌”。偈子是佛經體裁之一，主要有兩種：一曰通偈，由梵文32個章節構成；二曰別偈，共四句，每句四至七言不定。僧人常用這種四句的韻文來闡發佛理。

151) 迴光反照：亦作“回光反照”。(1) 由於日落時的光線反射，因而天空又短時間地發亮。(2) 也比喻人將死時神志忽然清醒或短暫的興奮。(3) 也比喻舊事物滅亡前表面上的短暫繁榮。(4) 謂自我省察。按，此作“自我省察”解。

152) 裏：猶助詞“呢”。同前註 8)

153) 日頭：日子。《董西廂》卷一：「沒一個日頭兒心放開，沒一個時辰兒不掛念。」(龍濟庵 編著，同上揭書，頁146。)

154) 的真：確實。《二十年目睹之怪現狀》第四一回：「我前月在杭州收了一尊柴窯的彌勒佛，只化得四吊錢，的真是古迹。」(許少峯 編，同上揭書，頁423。)

155) 善智識：指正直而有德行，能教導正道之人。

156) 公座：舊指官吏辦公的坐席。此應是“公座簿”之省。明·汪天賜 撰《官箴集要》(卷下，公座)：「升堂後皂隸報門，陰陽報時，同僚揖，首領揖，六房揖，門庫參見，始將公座簿以次簽押。」(摘自，百度)

157) 時：用作語氣間歇之詞，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拜月亭》一【金盞兒】：「怕不問時，權做弟兄；問着後，道做夫妻。」(顧學頤 王學奇，《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頁351。)呵，語助辭，相當於“時”，多用在假設分句後。按：類似現代漢語的(要是)……的話。(拙稿，《中國學論叢》，25輯)《黃鶴樓》一折白：「玄德公也，若你不來時，萬事罷論；若來呵，便插翅也飛不過大江去。」用在條件復句的前一分句末尾，表示假設、原因、條件等。元曲選，《謝天香》四折：「若是這般呵，功名成就多時了。」

158) 下世：離世，去世。即死亡。元·關漢卿《玉鏡台》第一折：「學士休得推辭，只看你下世姑父的面皮，教訓女孩兒則個。」(許少峯 編，同上揭書，頁1998。)

裏! 常言<sup>160</sup>)道: “今日脫靴上炕, 明日難保<sup>161</sup>)得<sup>162</sup>)穿.”

**【번역】**

甲某: 남성(南城) 영녕사(永寧寺)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시다. 法名이 步虛<sup>163</sup>)라고 하는, 見性得道한 高麗의 화상(和尚)이, 강남(江南)의 法名이 石屋이라는 和尚에게, 계송(偈頌)<sup>164</sup>)을 지어 올리고, 自我省察을 하시고, 대오득도(大悟得度)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분을 스승으로 모시니, 衣鉢(가사와 발우)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永寧寺에 돌아오셔서, 황제의 聖旨를 받들어, 법연(法筵)을 열어 설법을 하신다고 합니다.

乙某: 몇 일간이나 설법을 하십니까?

甲某: 삼일 낮 삼일 밤 동안 설법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레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하며, 모든 善男善女는 물론이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慈悲를 發願하고자 하여, 모두들 그 곳으로 불법을 들으러 간다고 합니다. 이런 참 스님<sup>165</sup>)을 어디서 또 찾

159) 有的是: 謂多得很. 元·無名氏《冤家債主》二白: 「你哥哥那裏有的是錢, 俺幫着你到那裏討去來。」(王學奇 王靜竹 撰著, 同上揭書, 頁1322.)

160) 常言: 民間流傳的口頭語, 如諺語格言等. 同前註 40)

161) 難保: 不能保證; 保不住.

162) 得: 襯字, 無義.

163) 原文의 '步虛'는 法名이 아니고 본명이라고 한 공운스님이 지은 <역대선지식 - 태고보우스님(1301년~1382년)> 글에서 볼 수 있다: 「1301년 9월 21일 양근군 대원리(옥천면)에서 출생 성은 홍(洪)씨, 본명은 보허(步虛)이며, 시호는 원증(圓證)이요, 아버지는 흥연(興延), 어머니는 정(鄭)씨. ... 1347년(47세) 7월에 중국 湖州 천호암으로 가서 임제 의현의 18대 법손 석옥(石玉)을 만나 도를 인정받았고, 40여 일 동안 石玉의 곁에서 臨濟禪을 탐구, 스님이 떠나려 하자 石玉은 <태고암가>의 발문을 써주는 한편, 깨달음의 신표로 가사(袈裟)를 주시면서, “이 가사는 오늘의 것이지만 법은 영축산에서 흘러나와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지금 그것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잘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중앙승가대학, 총동문화, 七佛會: 인터넷 네이버에서 발췌)

164) 原文의 '頌'은 불덕(佛德)을 찬미하고 교리를 서술한 4구(四句)의 시구(詩句)를 말하는 것으로 계송(偈頌)이라고도 한다. 범어(梵語)로는 가타(gāthā)라고 하며, 가타(伽陀)라고 부르기도 한다.

165) 原文의 '善知識'은 '불법을 설(說)하여 사람을 佛道로 들게 하는 덕이 높은 중'을 이르는 불교의 용어다.

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절 구경이나 감시다.

乙某: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내 관아에 들어가 공좌부(公座簿)<sup>166</sup>에 수결을 하고 곧 오겠습니다.

甲某: 우리 두 사람은 보시(布施)할 것과 향(香)을 가지고가서 공양과 참배를 드려, 작은 선문의 인연(因緣)이라도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人生七十古來稀(인생 칠십은 예부터 드물다)”라는 말이 있지만, 세 살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乙某: 격언에 “今日脫靴上炕, 明日難保得穿(오늘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갔어도, 내 일 다시 신는다는 보장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第40話 拘欄裏看雜技去來

拘欄<sup>167</sup>裏看雜技<sup>168</sup>去來。去時<sup>169</sup>怎麼得<sup>170</sup>入去的? 一個人與他五個錢時, 放入去。有諸般<sup>171</sup>唱詞的, 也有弄棒<sup>172</sup>的。一個高卓上脫下衣裳, 赤條條的仰白<sup>173</sup>着臥, 一托<sup>174</sup>來<sup>175</sup>長短, 停柱來粗細的油紅畫金棒子, 放在他脚心轉, 脚

166) 原文의 ‘公座’는 옛 관리들의 앉아 政務를 보는 좌석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관리가 관아(官衙)에 출근할 때 그 이름을 적던 장부인 ‘公座簿’의 줄임말로 보인다.

167) 拘欄: 又作勾欄, 宋代勾欄多同瓦市有關。瓦市, 又名瓦舍、瓦肆或瓦子, 是大城市裏娛樂場所的集中地, 也是宋元戲曲在城市中的主要表演場所, 相當於現在的戲院。明代以後, 又把妓院稱作勾欄。

168) 雜技: 古代娛樂形式之一種, 包括百戲、雜樂、歌舞戲、傀儡戲等。又稱“雜戲, 雜伎”。

169) 時: 用作語氣問歇之詞, 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同前註 157)

170) 得: 能。關漢卿《雙赴夢》二【收尾】:「關將軍美形狀, 張將軍猛勢況, 再何時得相訪。」(藍立冀 編著, 同上揭書, 頁60)

171) 諸般: 各種各樣。《水滸全傳》第四九回:「原來這樂和是個聰明伶俐的人, 諸般樂品盡曉得, 學着便會」(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2420。)

172) 弄棒: 使槍弄棒之省。明·施耐庵《水滸傳》第39回:「因他會寫諸家字體, 人都喚他做聖手書生。又會使槍弄棒, 舞劍掄刀。」

173) 仰白: 仰面跌倒或仰臥貌。《宋金元明清曲辭通釋》:「仰刺叉, 仰面跌倒或仰臥貌。亦作‘仰刺杖’‘仰刺叉’‘仰扒叉’‘仰不刺叉’‘養刺叉’。小說中又作‘仰八叉’‘仰巴叉’‘仰百叉’‘仰爬脚子’。如《金瓶梅》第二十回:‘把蔣竹山仰八叉跌了一交。’……今魯東人呼爲‘仰格楂’或‘仰不交子’, 北京也說‘仰不交子’。徐州話中, ‘仰不刺叉’‘仰八叉’并存。天津說‘仰巴脚子’或‘四仰八叉’。因係方言土語, 故字無定形。」(王學奇、王靜竹 撰著, 語文出版社, 2002年, 頁1260)

背上轉，指頭上轉，掉下來踢上去，弄的只是<sup>176</sup>眼花了。弄寶蓋<sup>177</sup>的，又是一個銅齧<sup>178</sup>、蠟齧<sup>179</sup>造化，帶着鬼臉兒<sup>180</sup>，翅兒舞。他的主兒拿着諸般顏色的小旗兒，那主兒着<sup>181</sup>那銅齧的嘴將那一個顏色的旗來，說時，便齧裏嚼將來，與他那主兒。有呈<sup>182</sup>諸般把戲<sup>183</sup>的那<sup>184</sup>？好看的甚麼<sup>185</sup>沒？我沒零錢<sup>186</sup>怎麼好？不妨事<sup>187</sup>。我有零錢，我管<sup>188</sup>着饋你。這般時倒好，古人道：因風吹火<sup>189</sup>，用力不多。

- 174) 托：長度單位。成人兩臂左右平伸時兩手之間的距離。《元典章·工部一》：「議得繫官緞匹例，織造幅闊一尺四寸，長五托之上。」（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326。）
- 175) 來：約計之詞，猶左右、上下。元·李文蔚《燕青博魚》楔子：「衆兄弟就推某爲首，聚三十六大伙，七十二小伙，半孩來的小僕僮。」（許少峯 編，同上揭書，頁1091。）
- 176) 只是：就是。《水滸全傳》第十五回：「阮小七道：『哥哥只顧坐主位，請教授坐客席；我兩個便先坐了。』」吳用道：「七郎只是性快。」（許少峯 編，同上揭書，頁2399。）
- 177) 寶蓋：佛道或帝王儀仗等的傘蓋。《觀佛三昧海經·觀四威儀品》：「於階道側豎諸寶幢，無量寶幡懸其幢頭，百億寶蓋彌覆其上。」【夾註】凡優人以造化鳥爲戲時，一人擎一彩帛葆蓋，先入優場，告戲雀之由。次有一人捧一雀以入作戲，如本節所云造化鳥 종다리，雄曰銅齧，雌曰蠟齧。
- 178) 銅齧：鸞鷲的別名。嘴硬而尖。宋·孔平仲《孔氏談苑·鸞鷲》：「京師夏間竟養銅齧，至九月多死。」（百度 百科）
- 179) 蠟齧：蠟嘴。即“蠟嘴鳥”。也稱“梅花雀”。
- 180) 鬼臉兒：仿照人物臉形制成的面具。《紅樓夢》第三六回：「（賈薔）便拿些穀子，哄的那個雀兒果然在那戲臺上亂串，銜鬼臉、旗幟。」
- 181) 着：教，命。元·缺名《陳州糶米》四折：「則俺那勢劍如風快，你死也應該，誰着你金錠當酒來。」（許少峯 編，同上揭書，頁2452。）
- 182) 呈：呈現，顯現，現露。
- 183) 把戲：技藝雜耍。《元史·祭祀志》：「祥和署掌雜把戲男女一百五十人。」（龍濟庵 編著，同上揭書，頁414。）按，魔術；雜技。清·李漁《閑情偶寄·詞曲下·格局》：「如做把戲者，暗藏一物於盆盎衣袖之中，做定而令人射覆。」
- 184) 那：此作語助詞，表疑問。金·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一：「百媚鶯鶯正驚訝，道：『這妮子荒忙則甚那？管是媽媽便來吵！』」同前註 115)
- 185) 甚麼：也做“甚的”，“甚么”，“甚末”等等。“麼、的、未”皆語助詞。“甚”，也可做“爲何，怎麼”之意。董解元《西廂記》：「紅娘，你好不分曉，甚把我攔截？」（許少峯 編，同上揭書，頁1661。）
- 186) 零錢：幣值小的錢。
- 187) 不妨事：沒關係，不成問題。《水滸全傳》第十一回：「林沖被打，掙扎不得，只叫道：『不妨事，我有分辦處。』」（許少峯 編，同上揭書，頁140。）
- 188) 管：一定，定然。元·尚仲賢《三奪槩》第四折：「那厮管見我這單英雄屈死的冤魂現，喙！你今日合教替他生天。」（許少峯 編，同上揭書，頁683。）
- 189) 因：順着。順着風勢吹火，比喻乘便行事，并不費力。

## 【번역】

甲某: 구란(拘欄)으로 잡기(雜技)<sup>190</sup> 구경 잡시다.

乙某: 가서는 어떻게 들어잡니까?

甲某: 한 사람에게 다섯 전(錢)을 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창(說唱)<sup>191</sup>을 하는 사람이며, 다양한 각종 병기(兵器)<sup>192</sup>의 묘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탁자 위에, 옷을 벗고, 맨살로 벌러덩 누워서, 길이가 한 발 정도, 기둥만큼 굽은 빨간 바탕에 금색으로 그림을 그린 막대<sup>193</sup>를, 발바닥에 놓고 굴리고, 발등에 놓고 돌리고, 발가락으로 돌리고, 떨어뜨리고 쳐 올리고, 그 묘기는 참으로 눈이 빙빙 돌 정도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보개(寶蓋)<sup>194</sup> 놀이를 하는 광대는 또 부리가 노란 수컷 종다리<sup>195</sup>와 부리가 푸른 암컷 종다리<sup>196</sup>와 놀이를 하는

190) 原文 '雜技'에 대하여 《새 우리말 큰 사전》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중국 고대와 중세에 행하여진 각종 예능을 통틀어 일컬음. 곡예·기술(奇術)·가면(假面)·무용·인형놀이 따위 잡다한 종류가 있음. 후세에 음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수(隋)나라를 거쳐 당나라 때에 정점에 달함. 백희(百戲)」(신기철 등, 삼성출판사, 1983년)

191) 原文 '唱詞'는 당시 民間에서 유행했던 講唱(說唱)의 한 형식으로 보인다. 사실(辭說) 부분은 散文으로 이루어 졌고, 장(唱) 부분은 운문(韻文)으로 이루어진 형식으로, 說과 唱을 바꿔가면서 하는 敘事體로서, 대체적으로 歷史와 傳說을 다루고 있다. 宋代에는 '陶真·鼓子詞·諸宮調' 등이 있고, 元代는 '詞話·貨郎兒', 明清은 '彈詞, 鼓詞' 등이다. 이러한 講唱文學은 元明時期에 가장 성행하였는데, 중요한 작품으로는 《水滸傳詞話》 《大唐秦王詞話》 등이 있다. 原文 '有諸般唱詞'의 一句에 대해서 《譯註朴通事諺解》(王霞 등, 학고방, 2012년, 162쪽)에서는 「여러 가지 연극을 하는 사람도 있고」라는 번역을 볼 수 있다.

192) 原文 '弄棒'은 '막대 놀이를 하다', '막대 묘기를 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바로 뒤에 막대(金棒子)의 묘기를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弄棒'은 '使槍弄棒', 즉 槍術이나 棒術 등의 다양한 兵器 묘기로 확대해석하였다. 改修本人 《朴通事新釋諺解》에서도 '裏頭也有諸般唱文詞的, 也有舞槍弄棒的'라고 改修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193) 原文 '油紅畫金棒子'에 대한 번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油紅빛채 금으로 그림 그린 막대'라고 한 諺解를 따랐다.

194) 原文 '寶蓋'는 佛家 또는 궁궐에서 帝王의 儀仗으로 쓰이는 것으로, 佛家에서는 불상의 머리 위에 씌우는 日傘을 말한다. 天空에 있으며 항상 불의 두상에 있기 때문에 '화개(華蓋)' '현개(懸蓋)'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장용으로 위용을 나타내는 寶蓋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장용 寶蓋에 대해서 《元史 志第二十九 輿服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金塗龍頭竿, 縣以纓絡, 銷金圓裙, 六角葆蓋(용머리를 조각한 장대에 금색을 칠하고, 주옥을 꿰어 만든 纓絡을 매달고, 금박의 둥근 치마 모양의 육각의 葆蓋)」, 「執骨朵二人, 執葆蓋四人, 皆分左右行(骨朵를 든 두 사람과 葆蓋를 든 네 사람이 각각 좌우로 나누어 행차하다)」.

195) 原文 '銅鬮'에 대해 앞의 주 178)번에서는 '딱딱하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왜가리(鷺鷥)라

데, 197) 가면을 씌우고, 날개 춤을 추게 합니다. 주인이 여러 가지 색깔의 작은 깃발을 들고, 주인이 수종다리에게 어떤 한 색깔의 깃발을 물고 오라고 시키면, 말하는 동시에, 부리로 물고와, 주인에게 줍니다.

乙某: 다양한 마술<sup>198)</sup>도 보여줍니까?

甲某: 멋진 구경거리(마술)가 어찌(왜)<sup>199)</sup> 없겠습니까?

乙某: 내개는 잔돈이 없는데 어찌하지요?

甲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개 잔돈이 있으니, 내가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乙某: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옛말에 '因風吹火, 用力不多(바람을 타고 불을 붙이면, 힘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는 설명을 볼 수 있다. 諺解에서는 종다리(종다릿과의 새. 몸은 참새보다 조금 크며 붉은 갈색이고 검은색 가로무늬가 있다)로 풀이되고 있다.

196) 原文 '蠟嘴'는 '고치새'로 참새과에 딸린 새. 크기는 기러기만 함. 등은 갈색이고 머리·날개 끝 쯤지는 금속광택이 나는 검은빛임. 부리는 짧고 통통한데 누름. '밀화부리' '납취(蠟嘴)' '납취작(蠟嘴雀)' '납취조(蠟嘴鳥)'(신기철 등,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3년).

197) 原文 '弄寶蓋的, 又是一個銅鑄蠟嘴造化'에 있어, 諺解의 夾註(앞의 주 177번)에서는 「광대가 조화를 부리는 새(造化鳥)를 가지고 놀음을 할 때, 한 사람이 오색비단의 보개(寶蓋)를 가지고 무대에 먼저 올라, 새 놀음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 사람이 새를 한 마리 안고 들어와 놀이를 하는데, 예를 들면 本文에서 말하는 '造化鳥'가 그것이다. '종다리의 수컷을 '銅鑄'라고 하고, 암컷을 '蠟嘴'라고 부른다.'라는 설명에서 보개(寶蓋)를 잡고 있는 광대는 해설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諺解 「寶蓋 농호는 이는 또 혼 부리 노론 소종다리 부리 프른 암종다리 노릇호디」를 그대로 옮겼다.

198) 原文 '把戲'에 대하여 위의 주 183)번에서처럼 '魔術'로 해석을 하여 「다양한 마술도 보여줍니까?」로 풀이를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이미 많은 묘기의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고, 또한 바로 뒤에서 나오는 어휘 '甚麼'를, 이유를 묻는 疑問代詞 '怎麼'와 함께 反語文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諺解 또한 「여러 가지 노릇 모호는 이 있느냐」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譯註朴通事諺解》(王霞 등, 학교방, 2012년, 162쪽)에서는 「온갖 묘기를 하는 사람이 다 있군.」이라는 번역을 볼 수가 있다.

199) 原文 '好看的甚麼沒'에서의 '甚麼'는 위의 註 185)번에서처럼 어떤 상황이나 이유 등을 묻는 '怎麼'의 의미를 가진다. 近代漢語에서의 '甚, 甚麼, 甚么, 甚的' 등은 現代漢語에서처럼 의문을 나타내는 등의 疑問代詞로 쓰이고 있는 것 외에 어떤 상황이나 이유를 묻는 '怎麼'의 의미를 가지는 用例를 볼 수 있다. 다음은 《白話語匯研究》(日·香坂順一著, 江藍生譯, 中華書局, 1997년, 120쪽)에서 재인용한 '甚麼'가 '怎麼', '爲甚麼' 등의 의미를 가지는 用例이다. 王實甫《西廂記》一本三折: 「今夜甚睡到得我眼裏呵!(오늘 밤은 어찌 잠을 잘 수 있을까!)」元曲《鴛鴦被》三折: 「你可甚麼在這裏受那苦楚來。(당신은 왜 이곳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까?)」

〈參考文獻〉

原典類

-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史(影印本)，1973年。  
汪維輝，《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2005年。  
錢南揚著，《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臺灣·華正書局，1990年。  
王學奇等校注，《關漢卿全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1990年。  
李小強 王小忠 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年。  
劉堅 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年。  
王士點、商企翁，(元)《秘書監志》，百度(인터넷)電子版。

詞典類

- 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  
顧學頤 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顧學頤 王學奇，《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顧學頤 王學奇，《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顧學頤 王學奇，《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劉堅 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劉堅 江藍生 主編，《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許少峯，《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吳士勛 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呂叔湘，《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年。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年。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年。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年。
- 王鏞 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 王鏞,《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年。
- 王鏞,《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年。
- 王鏞,《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年。
-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年。
- 蔣禮鴻 著,《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年。
- 劉昌淳,《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 藍立冀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 李法白 劉鏡芙 編著,《水滸語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 卜鍵 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 史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年。
- 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
-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
-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年。
- 謝紀鋒 編纂,《虛詞話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年。
-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年。
- 廖珣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年。
- 陸詹安 著,《小說詞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 박성훈 편저,《翻譯朴通事辭典》,태학사,2010。

#### 著書類

- 呂叔湘 著 江藍生 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年。
- 胡安竹 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年。
-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 香坂順一 著 江藍生 白維國 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 香坂順一 著 植田均 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年。
-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 俞光中 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 董志翹 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 王雲路 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 胡竹安 楊樹思 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 蔣紹愚 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年。
-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 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年。
- 房玉清 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年。
-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 呂叔湘,《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年。
- 青山定雄 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年。
- 蔣紹愚 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年。
-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年。
- 李泰洙,《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年。
- 傅雨賢 等著,《現代漢語介詞研究》,中山大學出版社,1997年。
- 魏耕原,《唐宋詩詞語詞考釋》,商務印書館,2006年。
- 郭作飛,《張協狀元詞彙研究》,巴蜀書社,2008年。
- 張美蘭,《近代漢語論稿》,江西教育出版社,2004年。
- 陳秀蘭,《敦煌變文詞彙研究》,四川民族出版社,2002年。
- 程湘清 主編,《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1992年。
- 李嵩興 等著,《元代漢語語法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9年。
- 장숙영 윤킴,《번역박통사 (상) 주석》,한국문화사,2008年。
- 정광 양오진 역주,《노박집답역주》,태학사,2011年。
- 정승혜 김향진 장향실 서형국 공역,《박통사 원나라 대도를 거닐다》,박문사,2011年。
- 왕하 류재원 최재영,《박통사연해》,학고방,2012年。

#### 論文

- 楊聯陞,〈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東方學志,1955年(臺灣)。
- 愼鏞權,〈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中國語文學》第48輯,2006年。
- 陳高華,〈從老乞大朴通事元與高麗的經濟文化交流〉,《歷史研究》,1995年。
- 王霞·유재원,〈朴通事諺解譯註(1)〉,《中國研究》第37卷,2006年。

- 최재영·정윤철, <朴通事諺解譯註(2)>, 《中國語文論譯叢刊》 18輯, 2006年.
- 王霞·유재원·최재영, <朴通事諺解譯註(3)>, 《中國研究》 第40卷, 2007年.
-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4)>, 《中國研究》 第42卷, 2008年.
- 王霞·崔宰榮, <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 2008年.
- 拙稿, <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 第36輯, 2008年.
- 拙稿,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2輯, 2008年.
- 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第39輯, 2008年.
- 拙稿,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 第25輯, 2009年.
- 拙稿,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 第41輯, 2009年.
- 拙稿,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 43輯, 2009年.
- 拙稿,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 44輯, 2010年.
- 拙稿,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刊》 27輯, 2010年.
- 拙稿, <原本老乞大語彙註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 10輯, 2010年.
- 拙稿, <原本老乞大語彙註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 11輯, 2011年.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 47輯, 2010年.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 48輯, 2011年.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三)>, 《中國語文論叢》 50輯, 2011年.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四)>, 《人文科學(光州大)》 13輯, 2012年.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 26輯, 2006年.
- 맹주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鄭旭, <老乞大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鐘煥,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 第1期, 2008年.

### < 中文提要 >

《老乞大》近二万字，分上、下卷。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為線索，用對話的形式，表現道路見聞、住宿飲食、買賣貨物等等，中間插入一些宴飲、治病的段落。《朴通事》的字數近三萬字，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分成上、中、下三卷。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式，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个方面，涉及宴會、買賣、農業、手工業、詞訟、宗教、游藝、景

物等多項內容。兩書的史料價值，非常之高。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從史學看，有許多難得的關於元、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從語學看，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元代到清代的《老乞大》、《朴通事》系列，是研究元代到清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老乞大》同為高麗、朝鮮兩朝人學習漢語的兩部會話教科書。關於二書原著者的生平時代，雖不可詳考，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仍可大致認定此二書的最初編著年代為元代，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老乞大》本子，韓國學者稱之為《原本老乞大》)。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翻譯朴通事》(上；1517年)、《朴通事諺解》(上、中、下；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其中《翻譯朴通事》為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可惜已經不全(只存上卷，缺中、下卷)。《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朴世華等十二人對《翻譯朴通事》所作的修訂。《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數文字有差異外，內容基本一致，由於《翻譯朴通事》已經不全，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為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老乞大集覽》和《單子解》，《朴通事諺解》有許多雙行小註，即所謂的“夾註”)一書，是一份“解釋詳明，徵引繁富”的珍貴資料，對研究漢語語言、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值。並且近來韓國、中國、日本等國家的學者，全面而不同角度對這兩系列書進行研究，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為題目，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朴通事》、《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譯註、朴通事新註新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27.	2013. 2. 13.	2013. 2. 18.	2013. 2. 21.	2013. 2. 28.